



金鍾吉 / 三寶컴퓨터 社長 / 本會 非常勤理事

컴퓨터 활황으로 이어진 프린터 호황

'89년 국내 컴퓨터 시장은 전체적으로 需要가 供給을 앞지르면서 예년 시장을 훨씬 상회하였다.

연초 住民管理網의 본격 추진으로 컴퓨터 업계가 바빠지기 시작하였고, 확산되는 企業의 勞使紛糾 움직임으로 인력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자 企業들이 事務自動化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또 조기 컴퓨터 교육의 실시 등 政府의 需要가 맞물려 예상 供給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하반기부터는 교육용 컴퓨터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PC-XT 중에서 보급형 컴퓨터의 가격이 급속히 인하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여파가 PC-AT에 까지 이어져 컴퓨터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시장을 더욱 부채질 하였다.

이러한 저가 PC의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각사들의 유통망 경쟁이 치열해져 유통망 확충에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그동안 전문 월간지나 경제지에 국한되던 관련업체들의 弘報活動이 일반 구매자들을 대상으로한 TV나 일간지 등의 대중매체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더이상 컴퓨터가 전문가용이 아니라 일반 대중용품으로서 파고 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가 PC붐으로 100만원 이상이었던 컴퓨터가 40만원대로 떨어지자 구매자들이 일시 주춤거리게 되었고 게다가 7월경부터는 業體들의 전제품가격인하가 일어나자 구매자들의 관망상태가 지속되었으나 결국은 저가 경쟁이 구매를 유발 시키면서 컴퓨터 시장은 작년보다 약 40% 이상 成長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가 PC는 곧 저기능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구매자들을 불쾌하게 만들면서 기능시비가 일었고 각 PC 메이커들은 저가 政策이 반드시 대량 수요를 유발하지만은 않으며 이용자에게 충실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經驗을 얻기도 하였다.

한편 예상보다 확대된 PC시장의 활성화는 그 주변기기로서 프린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육용의 저가 PC판매량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저가 프린터가 시장에 등장하여 Low Level PC용 주변기기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교육용 PC는 8비트 PC가 주류를 이루어왔고 프린터는 9핀 프린터가 이용되어 왔으나 금년도부터 16비트 저가 PC가 교육용으로 자리잡으면서 16

비트 PC의 아웃풋(output)에 적합한 24핀 프린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기존 일반 OA용을 주축으로 판매된 24핀 프린터의 가격이 교육용 PC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사용자의 구입 부담이 적지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 상황에서 100만원대 이상이면 24핀 프린터 가격이 60만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새로운 저가형 프린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현재 좋은 반응과 함께 내년에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는 물론 프린터에 있어서도 올해는 업계 전반적으로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너무 과대한 가격 및 공급경쟁으로 구매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90년에는 가격은 물론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가장 적당한 가격에 보다는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89년 국내 컴퓨터 시장은 년초 행망용 컴퓨터, 프린터 납품으로 활발히 시작하였고 '89년말부터 추진될 교육용 컴퓨터, 프린터 공급건으로 활발히 마무리될 전망이다.